



<Prodigal Son>
야기노 바이너트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정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여호 5,9-10-12

제2독서: 2코린 5,17-21

복음: 루카 15,1-3.11-32

가톨릭 성가 입당: 115

봉헌: 518

성체: 163

파견: 123

◆ 화답송



(후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사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씀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 복된 죄”

어린 조카 녀석이 자기의 젖병을 뿌리치고는 어른들의 뜨거운 커피를
넘보며 달려들기 시작하자 가족들은 찻잔을 들고 달아나느라
바쁘다. 그 순간 아기 아빠가 작은 티스푼에 조금 덜 뜨거운 커피를
덜어 아기에게 주니 아기는 뜨겁고 쓴 커피 맛에 인상을 찡그리며
한참을 울어댄다. 그 이후로 조카는 어른들의 커피를 넘보지 않게
되었는데, 때로는 체험만한 교육이 없는가보다.

성경에 나타난 죄의 역사를 보면서 가끔씩 하느님의 능력을
의심해본다. 인간 세상에 일사불란한 질서를 세우고 정의로써 통치
하셨다면, 인간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복음에 등장한 둘째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며 누리는 것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자 자기식의 행복을 찾아 나선다. 아버지는 무
례한 아들의 청을 거절하거나 말리지도 혼내지도 않으나 잠시 후
복음은 아들의 불행한 모습이 이어지고 아버지와의 감동스러운
만남으로 끝을 맺는다.

오늘 복음은 죄가 하느님의 사랑을 절실히 체험하는 기회가,
‘복된 죄’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아들의 방황이 오히려
아버지 품의 존귀함을 깨닫는 기회가 된 것이다.

성경은 죄인이 하느님과 만나지 못할 때 그 끝이 파멸과 죽음인
반면 하느님과 만날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곧 모든 죄가 ‘복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만나야,
참된 회개와 만나야 ‘복된 죄’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죄는 하
느님과 만나고 있나?

‘죄’는 줄어야 하지만 ‘복된 죄’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판공 시기에
고해소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죄’를 체험해
보자. ♣

(성경맛들이기 계속)

반아리우스파, 유사 본질파

성자는 성부와 같은 하느님이지만 하느님으로서 본질이 같지 않고 유사하다는 '유사본질'설

유사파

'성자는 성경에 따라 성부와 유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

영지주의(마르치온주의, 몬타누스주의)

영지주의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영-육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보인다. 영지주의는 "안다"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 단어 그노시스(gnosis)에서 유래한다.

영지주의는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두 가지 그릇된 전제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첫째,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원론이다. 영지주의자는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영지주의자들은 특정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는 "더 높은 진리", 곧 향상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이 육체라는 물질세계에 속박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영혼이 기원한 빛의 세계, 곧 초월적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겼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영지를 전하기 위해 오신 천상의 계시자 정도로 여겼다.

또한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는 신념에 따라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는 기적적으로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며, 예수님의 고난이나 죽음이나 부활은 실재적인 것이 아니다'는 가현설(假現說)을 주장했다.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대형인쇄 KQA PRINTING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광고주를 찾습니다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3월 31일	차지욱 안토니오	김호겸 아우구스티노	이경자 울리안나	한창희 바오로	정유진 쿤솔시아	이규완 이은경	김가연 이미진	이지훈 홍민철 양미숙 백승훈 김은희 민재인 박신희 백이백
4월 7일	주세정 레이첼	박태준 베네딕토	김은희 에스텔	황세유 루카스	이지연 안나레지나	김가연 박성희	홍원표 홍찬	김승애 신정목 이경자(울) 김효진 이경자(벨) 이서원 강호영 이경숙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4월 친교실 봉사는 청년성서모임입니다.

➤ 오늘, 이규완 안토니오, 이은경 헬렌 부부께서
결혼 40주년을 맞아 떡 봉헌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 지 사 항

➤ 4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3,10일)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오후 1시30분~2시50분	

➤ 사순절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 시작 및 주관단체 : 오전 9시, 윗 성당

오늘	학부모회/예수성가대회
4/7	울뜨레아
4/14	성령기도회/양업회

➤ 성삼일과 부활 성야 전례 안내

- 주님 만찬 성 목요일(4월 18일) : 밤 8시 윗 성당
- 주님 수난 성 금요일(4월 19일) : 밤 8시 윗 성당
- 파스카 성야(4월 20일) : 밤 9시 윗 성당

☺ 부활 성야 미사 중에 세례 및 견진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견진자는 4월 20일(토) 19:50시,
대부모님은 20시에 아래성당에서 모입니다.

➤ 요셉회 ❖ 성모회 피정

주제 :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전 11시~오후1시, 아래성당

➤ 기도모임에 초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코리안 컨퍼런스룸
주제 : 남북통일, 한인 공동체, 개인 어려움
많은 분들이, 남북통일, 한인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어려움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 미동북부 여성 제37차 꾸르실료 교육피정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일시 및 장소 : 4/25 ~ 28일(3박 4일), 뉴튼 수도원
주관 : 동북부 울뜨레아 사무국(지도: 박홍식 신부)
문의 : 신부님, 김승애 클라라(봉사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 순종, 사랑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그분과의
귀한 만남으로 가톨릭 신자로서 단 한번 만 주어지는 교육피정입니다.
여성 꾸르실료는 매년 4월, 남성은 10월에 각각 있습니다.

➤ 청년 성서모임 봄 학기 그룹원 모집

청년 성서모임에서 새로운 학기에 성서모임을 함께할 그룹
원을 모집 중입니다.

성서모임은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나눔을 하는 신앙생활 프로그램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반을 모집 중이니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 <https://goo.gl/forms/aZBlrwegE7iiYOEL2>

첫 모임 : 오늘 오후 1시

대표 : 양소영 엘리사벳(617.455.2245)

부대표 : 김형미 소화 데레사(929.361.0502)

➤ 청년성가대 <처음처럼> 제3회 성가발표회

청년성가대에서 "LAUDATE DOMINUM"

(부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을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4월 27일(토) 저녁 7시 30분, 윗 성당
이번 프로그램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다양한 장르의
성가들과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의 해설로 구성되어 있으니 교우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2019년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일시 및 장소 : 4월 6일(토) 오전 11시, 아래성당

☆4월 꾸리아 정기 모임도 함께 합니다.

➤ 제 64차 맞춤형 성령 세미나 참가 안내

일시 : 4월 26일(금) 오전 9시~28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Marian Shrine Retreat House

(174 Filors Lane, Stony Point, New York 10980)

선착순 45명 / 4월 15일(월) 신청마감

참가비 : 300불/1인당

신청문의 : 성령기도회나 김영희 안나(347.665.6696)

➤ 제 73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일시 : 5월 25일(토) 오후 7시~27일(월) 오후 5시

장소 : Double Tree By Hilton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ew Jersey

문의 및 신청 : 박기목 알버트, 박민재 아그네스 부부

(646.201.0175 / 646.808.7322)

그래도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려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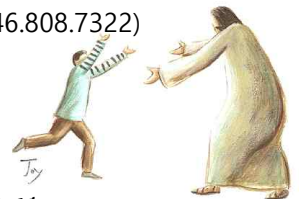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려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송명희

“성경 맛들이기” - 요한복음 배경지식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예수는 참 하느님이며 참 사람이다. 신성으로나 인성으로 모두 완전하다. 이 신성과 인성은 예수의 인격 안에서 혼합되지도 변화하지도 구분되지도 분리되지도 않는다.”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서도 완전하시며, 참 하느님이고 이성적 영혼과 육신으로 이뤄진 참 사람이시다. 신성으로는 성부와 동일본질이시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동일본질이시니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신성으로는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에게서 나셨고 인성으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칼케돈 정의 - 신앙 고백문에서)

◇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그리고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1) 에비오니즘 - 유다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교인들 중, 하느님은 한 분이라는 ‘유일신 사상’에 근거. ‘사람의 아들’에 대한 해석

- ①요셉의 아들 : 세례 때 성령을 받고, 예언직과 카리스마를 얻음.
- ②마리아의 아들 : 잉태 때 성령을 받고, 예언직과 카리스마를 얻음.

2) 단원론 - 예수는 신이지만, 하느님께 종속된 신이라는 이단(아리우스파와 반아리우스파, 유사파)

- ①양태론 : 한 분이신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양태만 바뀌어서 나타난 것. ‘성부 수난설’이라는 별칭.
- ②양자설 : 원래 사람이었던 예수가 성령을 받아서 하느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이단

아리우스파

아리우스는 진짜 신은 하나여야 한다는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단일성을 철저히 고수했다. 그러다 보니 하느님의 아들 곧 성자 그리스도는 참된 하느님일 수가 없었다. 아리우스에게 성자는 참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다. 성자는 피조물의 으뜸이지 하느님과 똑같은 본질을 지닌 완전하고 절대적 신일 수 없다. 성부만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아리우스의 주장이었다. (이어집니다)

◆ 미사 봉헌

● 연미사

민병택 베드로	가족, 성모회, 이병량, 한정진	봉헌
이준석	김종화, 필립보, 울뜨레아	
이영우, 이태묘	이상홍 스테파노	
송기순 마리아	홍지혜 클로틸다	
이민욱 미카엘	김지은 미카엘라	
곽순희 사비나, 강주옥 소피아	가족, 익명	
이창식 베드로, 이덕희 토마	이 아오싱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1,000
감사헌금	\$ 1,000
합 계	\$ 2,000

● 생미사

이규완 안토니오, 이은경 헬렌	양미숙 마리아
표해심 카타리나	성모회, 김성중, 박기목
유민규	이 유스티나
이종환 T.아퀴나스, 이정주 소화데레사	채봉석 그레고리
김성인 신부	필 미카엘라
필부국 그레고리오	필 미카엘라
필부영 크리스티나	필 미카엘라
김화자 데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김영숙 카타리나, 이병국 요한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민사룡 가브리엘, 민사현 베드로	민 안젤라
김정숙, 정우득	민 안젤라
임노엘 루카	임유진 라자로

교무금 :
 오인희 박순 안상민 부원희 이민영 정봉애 박아영
 김용자 강순기 김지현 조동균 양서윤 심나은
 박승민 최나은 원혜경

감사헌금 :
 이규완 안토니오 부부